로리앙 브르타뉴 철도역

Lorient-Bretagne Sud

Architect : AREP(Etienne Tricaud - François Bonnefille - Olivier Boissonnet),
SNCF Gares & Connexions

글. 이지현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이번 달에는 2017년 7월에 완공된 프랑스 로리앙*-Lorient-*에 위치한 기차역을 소개한다. 이 기차역은 '캥페르~브레스트~파리*-Quimper~Brest~Paris-*' 도시들을 총 3시간만에 이동할 수 있는 'Bretagne à Grande Vitesse Project*-영국 고속 철도 프로젝트-*'의 일부로써 진행됐고 AREP(Etienne Tricaud - François Bonnefille - Olivier Boissonnet) 및 SNCF Gares & Connexions 건축사에 의해 설계됐다.

로리앙 역의 남쪽으로는 도심과 교통 허브의 중심과 가깝고, 기차역 중심부에서 모든 승강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역 개장 시간 동안 케렌트레흐*-Kerentrech-* 지구와 도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차역의 메인 파사드는 도시의 중심부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고, 그 형태의 직선적임과 전반적으로 절제된 곡선은 이 도시의 전통적 산업의 일부인 선박의 한 부분을 암시하는 듯 하다.
여느 기차역이 그렇듯이 이 직선 형태의 기차역은 전체적으로 115m가 넘는데, 각각의 파사드는 기능과 도시에서의 역할, 그리고 자연광이나 단열 등을 고려하여 남쪽과 북쪽의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남쪽 파사드는 단열재, 내부 및 외부 목재 클래딩, 유약 처리 된 표면 및 이중 스킨, 서브

그림 1) 로리앙 브르타뉴 철도역 전경

프레임으로 모델링 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스크린으로 구성된 복잡한 목재 구조로써 도시와 맞닿아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연광을 기차역 공간 깊숙히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건축적으로는 견고하고 두터운 질감-*Texture*-를 선사한다.

북쪽 파사드의 대부분은 유리 커튼월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의 넓은 입구는 새로운 TER 플랫폼(특급 지역 노선), 철도 트랙, 개설될 북쪽 출구 및 케렌트레흐의 유적지를 조금씩 엿보게 하는 건축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레이어(겹침)를 보여주는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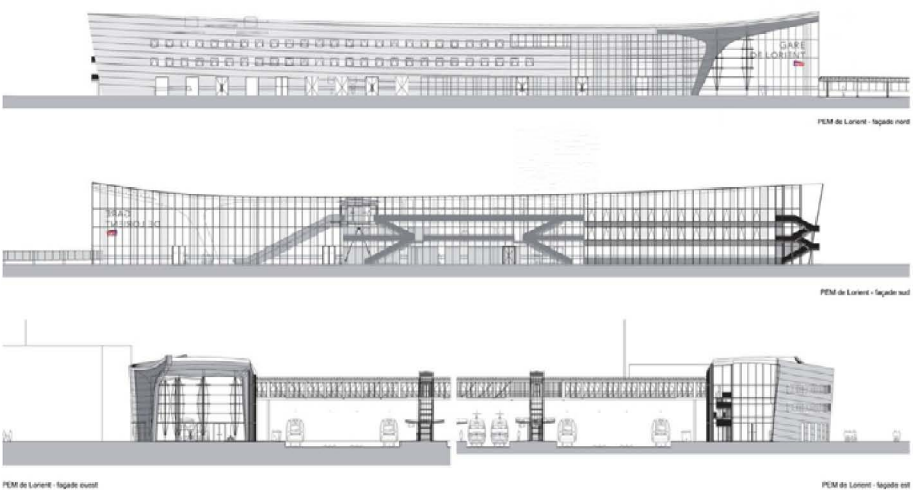

그림 2) 로리앙 역의 입면도

그림 3) 두개의 트렉을 연결하는 트러스 형태의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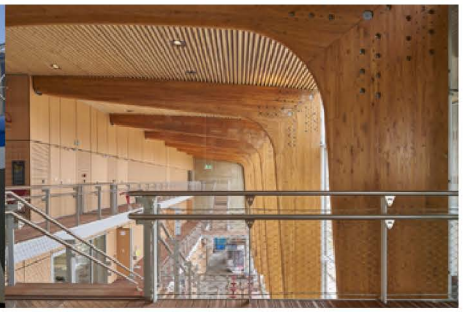

그림 4) 로리앙 역의 내부 구조체

로리앙 역의 스킨 안쪽으로의 구조는 길이 113m, 높이 11m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물 지붕 슬라브의 하중을 24개의 스팬이 12m~19m 간격으로 고르게 나눠주면서 큰 뼈대를 형성했다. 이 각각의 기둥 및 브레이스들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지붕 하중을 고르게 받아 기초로 전달시킨다. 반면 두 트랙 사이를 잇는 다리는 약 60m로써 각각 30m 스팬 하중을 받치고 있는 트러스 구조로 짜여져 있다. 버스정류장은 160m의 길이로 4.8m 간격의 빔이 캐노피를 받치는 구조로 뻗어있다. 이러한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기능에 충실한 실용적 구조는 과거의 여느 기차역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연히 구분되고 그의 근대성-*Modernity*-을 표현한다.

그림 5)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외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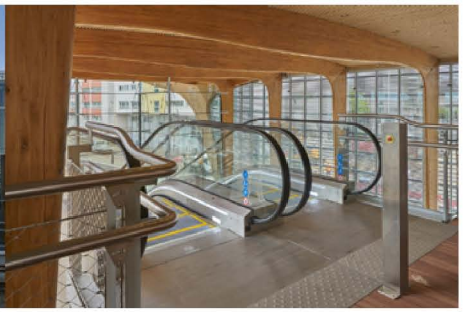

그림 6)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내부모습

역사적으로 기차역은 유럽에서 어떤 도시를 도착했을 때에 처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건물인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형태나 구조, 역사적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롭게 증축된 로리앙 역의 건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기념비적, 영웅적 형태가 아니라 도시의 여러 기반시설을 품으면서, 여러가지 도시의 필수 서비스를 제안하는 도구로써의 역할일 것이다.

바깥쪽에서 건물의 내부를 인식할 때는 투명한 하늘과 도시의 모습을 유리파사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스크린으로 설계된 반면, 건물의 내부는 따뜻하고 친근한, 마치 한 집의 거실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준다. 아마도 내부 구조체가 전나무*-구조용 목재-*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가 전체적으로 목재로 마감된 덕분일까. 목재의 부드러운 곡선은 마치 하부로의 중력과 풍하중을 무마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공간의 형태를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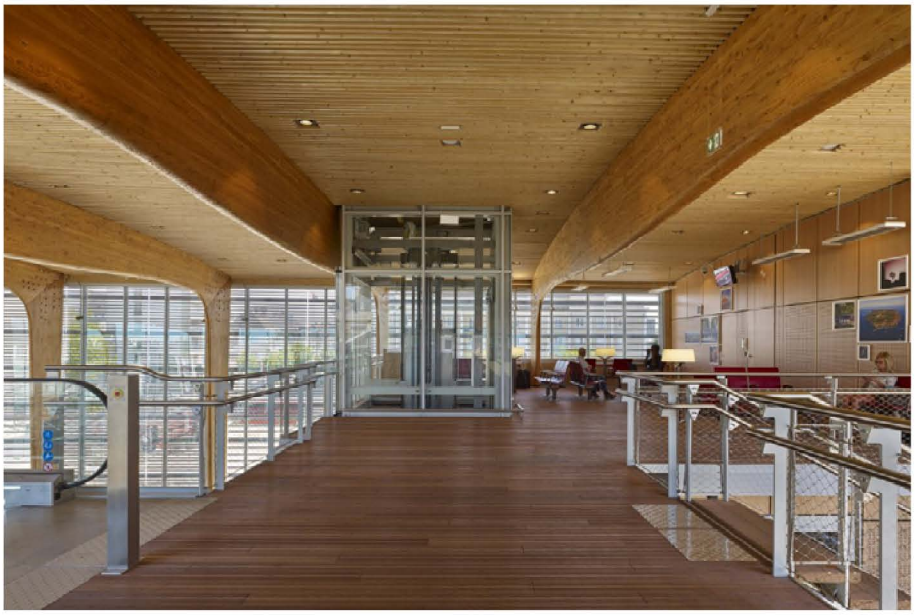

그림 7) 내부는 전나무를 이용해 마감해 거실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